

#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Stress for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고, 분석 대상은 261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극복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 $r=-.251, p<.001$ )는 음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r=.572, p<.001$ )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beta=-.162, p=.002$ ), 학과전공 만족도( $\beta=1.02, p=.065$ ), 자기효능감( $\beta=.428, p<.001$ ),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416, p<.001$ ), 사회적 자기효능감( $\beta=.142, p=.020$ )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34.07%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과 특성 프로그램 적용하여 극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stress in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nursing students in the C region. The study period wa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1. The data of 261 nursing student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lationship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ilience showed variations according to gend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elf-efficacy. Resilien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 $r=-.251, p<.001$ )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r=.572, p<.001$ ). Resilience was influenced by gender ( $\beta=-.162, p=.002$ ),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eta=1.02, p=.065$ ), and self-efficacy( $\beta=.428, p<.001$ ). Under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beta=.416, p<.001$ ) and social self-efficacy( $\beta=.142, p=.020$ )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silien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4.07%.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formulate programs feat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and contributing to the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thus increase and reinforce their resilience.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factors positively influencing resilience.

**Keywords** :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Nursing College Stud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Jungwon University Research Grant(과제관리번호: 2021-048)."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

E-mail: jkim17@jwu.ac.kr

Received May 18, 2022

Revised June 29,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 예비사회인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경쟁과 압력들을 극복해야 하는[1]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장래문제, 학업문제, 가치관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당면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3] 보고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을 획득해야만 하므로 대학생활의 적응 측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4]. 미래 간호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은 대상자가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역할자인 간호사의 역할을 준비함파[5] 동시에 스스로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 스트레스, 고통을 성장 경험으로 전환하고 성장시켜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6],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실정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으로 나타나는 긴장하는 상태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긴장과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들[7] 말한다.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진로 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8]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교과과정이나 학습량이 많아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9].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수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 또는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과 신념을 말하며[10], 주어진 수준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11]이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1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를 하면서 동시에 소극적 대처를 함께 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성취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13],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극복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극복 가능하고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심리, 사회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15],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정서적 활기 또는 긍정적 성격 특성을 말한다[16]. 또한, 극복력은 개인이 가진 극복력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강화 시켜주면 문제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17]. 스트레스와 극복력은 밀접한 관계로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역할을 하여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극복력이 약하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극복력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반응으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4]. 그러므로 타 전공 대학생보다 과중한 학업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극복력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방식[18], 스트레스 대처방식[5] 등으로 그동안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상황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차원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극복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며,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자기효능감과 극복력과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대

학생활동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극복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 정도를 알아보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 정도인 .15, 예측변수 10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6명이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임상실습과 학교수업 교체시기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전환 시기 및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부정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총 28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269부 이었으며,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생활 정도, 성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대학생활동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Yoo 등[20]이 개발한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9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개인 내 15문항, 개인 간 5문항, 학업 10문항, 환경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많이 경험한다'는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39-195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93$ 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rer등[21]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s: SES)를 Hong[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아니다'를 1점, '아주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점수 범위는 23-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90$ 이었다.

#### 2.3.3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Wagnild와 Young[16]이 개발한 척도(Resilience Scale: RS)척도를 Song[23]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개인의 유능성 17문항, 자신의 삶 수용 8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에서 '동의한다' 7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7-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8$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9$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절차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 기간, 방법, 연구대상자의 보호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었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성적,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생활 정도, 학과전공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56명(21.5%), 여자가 205명(78.5%)이었으며, 나이는 21-22세가 106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23-24세 70명(26.8%)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n	%
Gender	Male	56	21.5
	Female	205	78.5
Age(yr)	<20	69	26.4
	21-22	106	40.6
	23-24	70	26.8
	>25	16	6.1
	Grade	1st grade	69
	2nd grade	67	25.6
	3rd grade	61	23.0
	4th grade	64	25.0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64	24.5
	Midrange	143	54.8
	Lower level (less than 30%)	54	20.7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56	21.5
	Good	145	55.5
	Usually	58	22.2
	Bad	2	0.8
Health	Very healthy	46	17.6
	health	130	49.8
	usually	71	27.2
	Bad	12	4.6
	Very Bad	2	0.8
Family economic life	Very short	3	1.1
	lack	24	9.2
	Usually	153	58.6
	Relaxation	54	20.7
	Very relaxed	27	10.3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7	14.2
	A little satisfied	144	43.7
	Common	87	33.3
	A little unsatisfied	18	6.9
	Very unsatisfied	5	1.9
Total		261	100.0

학년에서는 1학년 69명(26.4%), 2학년 67명(25.6%)이었으며, 성적에서는 중위권이 143명(54.8%)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 좋음' 145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58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는 군이 130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보통'인 군도 71명(27.2%), '나쁨'인 군 12명(4.6%)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 144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18명(6.9%), '매우 불만족'이 5명(1.9%)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수준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49±.64이며, 하위영역으로 '개인 내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32±1.77, '개인 간 스트레스' 평균값은 1.97±.59,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89±.73, '환경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30±.75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1±.6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0±.53,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3±.55로 나타났다. 극복력의 평균값은 4.67±1.00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개인의 유능성'의 평균값은 4.64±1.06, '자신의 삶 수용'의 평균값은 4.74±1.02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성별( $F=-3.03, p=.003$ ), 학년( $F=2.00, p=.009$ ), 대인관계( $F=18.30, p<.001$ ), 건강상태( $F=10.58, p<.001$ ), 학과전공 만족도( $F=11.0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은 대학생활스트레스 평균값 2.55±.63, 남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평균값은 2.26±.65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p=.003$ ). 학년에서는 1학년은 2.33±.61, 4학년은 2.66±.95로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p=.009$ ).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3.35±2.30,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군이 2.11±.587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 군이 4.52±27.6, '매우 좋음' 군은 2.21±45.0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군이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3.32±.1.23, '매우 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2.12±.61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매우 만족'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Table 2. Level of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261)

Variables		M±SD	Range
Stress for college life	Personal stress	2.32±.77	15-75
	Interpersonal stress	1.97±.59	5-25
	Academic stress	2.89±.73	10-50
	Environmental stress	2.30±.75	9-45
	Total	2.49±.64	39-195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3.30±.53	17-85
	Social self-efficacy	3.33±.55	6-30
	Total	3.31±.62	23-115
Resilience	Individual competence	4.64±1.06	17-85
	Accept one's own life	4.74±1.02	8-40
	Total	4.67±1.00	7-175

Table 3. Differences in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1)

Variabl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Resilie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2.26±.65	-3.03	.003	3.42±.65	1.89	.059	5.13±.48	3.92	<.001
	Female	2.55±.63			3.28±.63			4.55±.50		
Age(yr)	<20 <sup>a</sup>	2.40±.59	.941	.421	3.38±.56	.90	.441	5.04±.91	.604	<.001
	21-22 <sup>b</sup>	2.55±.63			3.27±.50			4.51±1.04		b,c<a,d
	23-24 <sup>c</sup>	2.52±.64			3.28±.46			4.48±.95		
	>25 <sup>d</sup>	2.36±.95			3.40±.33			5.08±.91		
Grade	1st grade <sup>a</sup>	2.33±.61	2.11	.009	3.41±.49	1.56	.190	5.10±.88	6.74	<.001
	2nd grade <sup>b</sup>	2.51±.61		a(b,c<d	3.31±.59			4.59±1.19		b,c,d<a
	3rd grade <sup>c</sup>	2.53±.67			3.26±.42			4.47±.84		
	4th grade <sup>d</sup>	2.60±.60			3.24±.44			4.50±.93		
Course Credits	Top level <sup>a</sup>	2.43±.56	1.12	.328	3.37±.53	2.30	.102	4.81±.83	1.56	.212
	Midrange <sup>b</sup>	2.48±.66			3.30±.48		c<b<a	4.69±1.06		
	Lower level <sup>c</sup>	2.60±.69			3.18±.50			4.48±1.02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sup>a</sup>	2.11±.57	18.30	<.001	3.53±.49	10.29	<.001	5.21±.92	5.90	<.001
	Good <sup>b</sup>	2.46±.60		a,b<c<d	3.33±.46		c<a,b<d	4.58±1.03		b,c<a<d
	Usually <sup>c</sup>	2.90±.51			3.04±.49			4.35±.77		
	Bad <sup>d</sup>	3.35±2.30			3.60±.86			6.02±1.03		
Health	Very healthy <sup>a</sup>	2.21±45.0	10.58	<.001	3.33±.51	1.74	.140	5.08±.92	2.83	.025
	Health <sup>b</sup>	2.43±29.8		a,b,c,d<e	3.38±.48			4.63±1.03		
	Usually <sup>c</sup>	2.69±27.7			3.32±.50			4.53±.87		
	Bad <sup>d</sup>	2.69±21.7			3.25±.55			4.40±1.28		
	Very Bad <sup>e</sup>	4.52±27.6			2.93±.09			5.38±5.38		
Family economic life	Very short <sup>a</sup>	3.12±1.63	1.96	.101	3.52±.79	2.11	.080	4.77±3.26	1.19	.314
	Lack <sup>b</sup>	2.55±.71		b,c,d,e<a	3.11±.45			4.50±.72		
	Usually <sup>c</sup>	2.52±.62			3.29±.48			4.61±.93		
	Relaxation <sup>d</sup>	2.46±.59			3.37±.52			4.76±1.03		
	Very relaxed <sup>e</sup>	2.23±.67			3.47±.52			5.01±1.07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up>a</sup>	2.12±.61	11.01	<.001	3.61±.52	10.16	<.001	5.43±.82	9.30	<.001
	A little satisfied <sup>b</sup>	2.37±.64		a<b,c,d<e	3.39±.48		d,e<(b,c)>a	4.71±.91		b,c,d,e<a
	Common <sup>c</sup>	2.67±.53			3.19±.44			4.44±1.03		
	A little unsatisfied <sup>d</sup>	2.91±.33			2.91±.36			4.03±.83		
	Very unsatisfied <sup>e</sup>	3.32±1.23			2.89±.35			4.67±1.29		

\*a,b,c,d:Duncan test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 $F=1.89, p=.059$ ), 대인관계( $F=10.29, p<.001$ ), 학과전공 만족도( $F=10.16,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자기효능감 평균값  $3.42\pm.65$ , 여학생의 평균값은  $3.28\pm.635$ 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p=.059$ ).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3.60\pm.86$ , 대인관계가 '보통' 군이  $3.04\pm.49$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2.89\pm.35$ ,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3.61\pm.51$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극복력에서는 성별( $F=3.92, p<.001$ ), 연령( $F=.604, p<.001$ ), 학년( $F=6.74, p<.001$ ), 대인관계( $F=5.90, p<.001$ ), 학과전공 만족도( $F=9.3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극복력 평균값  $5.13\pm.38$ , 여학생의 평균값  $4.55\pm.50$ 으로 남학생이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p<.001$ ). 연령에서는 25세 이상에서 평균값  $5.08\pm.91$ 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에서  $5.10\pm.88$ 로 다른 학년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p<.001$ ).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6.02\pm 1.03$ , 대인관계가 '보통' 군이  $4.35\pm.77$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볼 때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극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5.43\pm.82$ ,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4.67\pm 1.29$ 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극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 3.4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극복력과 대학생활스트레스( $r=-.251, p<.001$ )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개인 내 스트레스( $r=-.223, p<.001$ ), 개인 간 스트레스( $r=-.276, p<.001$ ), 학업스트레스( $r=-.174, p<.001$ ), 환경스트레스( $r=-.212, p<.001$ )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극복력과 자기효능감은( $r=.572, p<.001$ )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r=.558, p<.001$ ), 사회적 자기효능감( $r=.417, p<.001$ )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r=-.340, p<.001$ )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대학생활스트레스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r=-.349, p<.001$ ), 사회적 자기효능감( $r=-.207, p<.001$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261)

Variables	Resilience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r	p	r	p	r	p
Resilience	1					
Individual competence	.986**	<.001				
Accept one's own life	.949**	<.001				
Stress for college life	-.251**	<.001	1			
Personal stress	-.223**	<.001	.915**	<.001		
Interpersonal stress	-.276**	<.001	.741**	<.001		
Academic stress	-.174**	<.001	.805**	<.001		
Environmental stress	-.212**	<.001	.864**	<.001		
Self-efficacy	.572**	<.001	-.340**	<.001	1	
General self-efficacy	.558**	<.001	-.349**	<.001	.964**	<.001
Social self-efficacy	.417**	<.001	-.207**	<.001	.759**	<.001

\*\*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2.31	.564		14.42	.000
Gender*	-3.97	.128	-.162	-3.10	.002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6.661	.378	-1.02	-1.676	.065
Human relationship*	.024	.087	.017	.281	.779
Stress for college life	.263	2.383	.107	.110	.912
Personal stress	-.017	.966	-.059	-.079	.937
Interpersonal stress	-.110	.333	-.065	-.331	.741
Academic stress	-.048	.634	-.035	-.076	.939
Environmental stress	-.083	.565	-.062	-.147	.883
Self-efficacy	.780	.128	.428	6.840	.000
General self-efficacy	.784	.124	.416	6.347	.000
Social self-efficacy	.234	.102	.142	2.226	.020

R<sup>2</sup>=.366, Adj R<sup>2</sup>=.340, p<.001

\* Dummy variable: \* Gender: Reference group-F(0), M(1)

\*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Reference group-Satisfied(00), Very satisfied(10), Common(01), A little unsatisfied(100), Very unsatisfied(001),

\* Human relationship: Reference group-Very good(00), Good(10), Usually(01), Bad(100)

### 3.5 대상자의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극복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를 Dummy 변수로 전환하고, 극복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대학생활스트레스와 하위영역인 개인 내, 개인 간, 학업 환경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735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31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75-1.558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수로 하여 극복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42, p<.001), 극복력을 수정된 R<sup>2</sup>는 34.0% 설명하였다. 성별( $\beta$ =-.162, p=.002), 학과전공 만족도( $\beta$ =1.02, p=.065), 자기효능감( $\beta$ =.428, p<.001),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 =.416, p<.001), 사회적 자기

효능감( $\beta$ =.142, p=.020) 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건강한 대학 생활과 예방적인 차원의 극복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을 34.0%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확인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의 전체 평균값은 4.67점으로 이는 Park[24]의 연구에서는 평균 4.51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개인의 유용성' 4.64점으로 '자신의 삶 수용' 4.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학업스트레스가 2.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내 스트레스가 2.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Jung 등[25]의 연구에서는 평균 2.85점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하위 영역에서의 학

업스트레스, 개인 내 스트레스는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의 연구에서는 학업, 장애, 가치관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부딪치는 당면과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학업 및 임상 실습, 국가고시 등 엄격한 교육과정 분위기가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현실적인 긴장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며[26], 간호대학생들이 학업문제와 관련된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수준에 대한 점검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1점으로 나타났고, Whang의 연구[27]에서는 3.52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았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28]의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결국,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낮아지므로[28],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활 전반에 대해 조절 능력을 키우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간호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의 평균값은 4.67점으로 Lee 등[4] 연구에서의 3.3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극복력은 위험이나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한 상태로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29], 간호대학생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차이를 살펴보는 어렵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극복력을 보일 수 있도록, 극복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대인관계, 학과전공 만족도, 건강상태나 가정 경제정도 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Lee 등[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스트레스 관련에서는 학년, 연령, 학과전공 만족도, 건강상태, 대인관계로 나타났고, 극복력 관련에서는 학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Jung 등[2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스트레스와 건강상태, 가정생활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상태나 건강상태의 어려움은 대인관계나 생활면에서 위축을 초래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im과 Lee[30]의 연구에서는 학교성적, 대학생활만족 등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고,

가정수입이 많을수록 극복력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은 크게 영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후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극복력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극복력과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0]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는 극복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극복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스트레스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Son 등[31]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능성을 발휘하거나 삶을 수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극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여주기 위해 학과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극복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극복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긍정적인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대인관계, 학과전공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극복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로,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별,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고, 특히 학과전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극복력과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1, pp. 650-658, 2014.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4.20.4.650>
- [2] Omigbodun OO1, Odugogbe AT, Omigbodun AO, Yusuf OB, Bella TT, Olayemi O., "Stressor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students of medicine and allied health professions in Nigeri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1, no. 5, pp. 415-421, 2006.  
DOI: <https://doi.org/10.1007/s00127-006-0037-3>
- [3] K. K. Chon, K. 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 vol. 5, pp. 316-335, 2000.
- [4] Y. S. Lee, E. J. Ahn, M. J. Kim, M. A. Kim, B.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resili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7 no. 1, pp.1-10. 2012.
- [5] S. Y. Min, S. K. Chaung, "Self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3, pp. 299-307, 2006.
- [6] L.V. Polk, Toward amiddle -range theory of resilience .*Advances in nursings cience*, vol. 19 no. 3 pp. 1-13, 1997.  
DOI: <https://doi.org/10.1097/00012272-199703000-00002>
- [7] Sely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76.  
DOI: <https://doi.org/10.2106/00004623-195739020-00034>
- [8] S. H. Kim, S. Y. Bae,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367-376,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0.367>
- [9] G. Y. Joo, Y. S. Choi,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300-730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300>
- [10] D. F. Shell, C. Colvin., R. H. Bruning, "Self-efficacy, attribution and outcome expectancy mechanism in reading and writing achievement", *Grade-level and Achievement-level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87, pp. 386-398,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7.3.386>
- [11] Zimmerman,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pp. 82-91, 2000.  
DOI: <https://doi.org/10.1006/ceps.1999.1016>
- [12] S. H. Le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orogram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4, pp. 539-547, 2008.
- [13]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 Res Instit Korean Edu*, vol. 19, pp. 101-115, 2004.
- [14] S. H. Jang, M. Y. Le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EN*, vol. 9, no. 2, pp. 255-265, 2015.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15.06.9.2.255>
- [15] N. Garmezy,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 Ann* vol. 20, pp. 459-466, 1991.  
DOI: <https://doi.org/10.3928/0090-4481-19910901-05>
- [16] G. M. Wagnil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 1, no. 2, pp. 165-178, 1993.  
<https://www.ncbi.nlm.nih.gov/pubmed/7850498>
- [17] J. S. Kim, S. J. Park, "Relevance of critical thinking, coping powe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12, pp. 247-256, 2018.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20683](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20683)
- [18] S. L. Kim, J.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1, pp. 98-106, 2005.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3, pp.410-419, 2008.  
DOI: <https://doi.org/10.4040/ikan.2008.38.3.410>
- [21] M. Sherer, J. E. Maddux,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2]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5.
- [23] Y. S. Song,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Kosh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4] M. H. Kang, J. S. Kwon, K. O. Oh, "Influencing factors of resilie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tress", *Korean J Str Res*, vol. 20, pp. 187-198, 2012.
- [25] J. S. Kin, H. K. Jung, N. G. Park, "A study on the related factors of students' stress in dental laboratory college-focusing in Daegu and Jeju", *J Korea Acad Dent Tech*, vol. 30, pp. 121-130, 2008.
- [26] E. J. Park, G. S. Jeong, "The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Department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Integrated Medicine*, vol. 6, no. 3, pp. 113-121, 2018.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8.6.3.113>
- [27]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vol. 12, no. 2, pp. 205-213, 2006.
- [28] K. S. Han,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 35, no. 3, pp. 585-592, 2005.  
DOI: <https://doi.org/10.4040/ikan.2005.35.3.585>
- [29] S. Wolin, S. Wolin, "Resilience among youth growing up in substance-abusing families". *Pediatr Clin North Am*, vol. 42, no. 4, pp. 415-429, 1995.  
DOI: [https://doi.org/10.1016/s0031-3955\(16\)38955-6](https://doi.org/10.1016/s0031-3955(16)38955-6)
- [30] H. K. Kim, M. H. Lee,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mo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41, no. 5, pp. 642-65, 2011.  
DOI: <https://doi.org/10.4040/ikan.2011.41.5.642>
- [31] Y. J. Son, H. H. Kong, M. A. Yu, S. S. Kong, "Relationships between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resili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1, pp. 515-530, 2015.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8787977>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